

지속가능한 놀이터도시 전주 위한 포럼 개최

시,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 주제... 놀이문화 확산·발전방향 등 제시

전주를 지속가능한 놀이터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놀이 친화적 환경을 더욱 확충하고 놀이인력과 놀이사업 수행기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야호학교에서 놀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2021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야호 5대플랜 놀이정책'에 대한 기초장면으로 시작해 김지연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 이도훈 코끼리가는길 대표의 주제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놀이터도시 전주 발전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지연 박사는 2020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실외 놀이터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놀이 친화적 환경 개발 ▲놀이인력 및 놀이사업 수행기관 양성 ▲놀이 인식교육 및 놀이사업 홍보 강화 등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이도훈 대표는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놀이터 사례를 소개하면서 놀이문화에 대해 행정과 민간이 서로 이해하



전주시는 지난 4일 야호학교에서 놀이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놀이터도시 전주, 놀이의 다양성으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2021 놀이터도시 전주 포럼'을 개최했다.

고 배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도 이어졌다. 종합토론회에는 이승일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과 제충만 아동권리 옹호전문가,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지부장 등이 참여해 놀이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제충만 아동권리 옹호전문가는 "현재까지 전주시의 아동 놀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야호 놀이터지도에 장애아동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우주로 1216', '야호학교', '야호놀이터', 노송광장 트리하우스 등의 조성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조성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 시는 ▲야호생태·숲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교육 등 야호 5대플랜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도훈 대표는 "이번 포럼은 전주시 아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놀이터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는가? 시민으로서 배려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야호 플랜이 시작되었다"면서 "전주의 야호 생태·숲놀이터와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꿈과 상상력, 가능성을 키워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전주시 LIVE'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윤상 기자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

7일까지 진행·내달 5일 전주한지패션대전으로 마무리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가 주관하는 제25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막했다.

함께 한 지금, 한지를 맞닿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는 한지의 멋과 가치를 즐기고, 알리고, 함께하기 위해 한지의 쓰임부터 활용, 응용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오는 7일까지 사흘 동안 전시 및 행사 등 현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 뒤 다음 달 5일 2021 전주한지패션대전과 함께 마무리된다.

첫날 행사로는 리스한지공예, 한지교놀이, 한지제기차기, 한지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다. 특히 참여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보는 한지패션쇼가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전시실에서는 한지등과 닥종이인형 등 제27회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도 전시가 시작됐다. 축제 2일차인 6일에는 집콕공예교실과 전주한지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집콕공예교실은 한지 부채와 한지등, 우산갓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 중간에는 이벤트를 통해 한지마스크, 한지비누, 한지양말,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경우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보존처리 적용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이탈리아와 바티칸의 지류 및 복원 전문가가 화상으로 참여해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전주한지를 패션에 접목시켜 전주한지의 위상을 높일 '2021 전주한지패션대전'이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한지패션대전은 제18회 한지패션 디자인경진대회와 함께 디자이너 갈라쇼, 세계민속의상한지 패션쇼 등으로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전주시, 임대료·보증금 인하한 건물주 대상 70%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7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70%까지 확대 감면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줬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이번에는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예도 해당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

려 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보증금) 인하 증빙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통장 이체 내역 증 택일)를 지참해 건물주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45명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642건, 1억4,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282, 5385, 5390),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282, 6283, 6286, 63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진드기 감염병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기피제 사용 등 수칙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봄철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하기와 옷 갈아입기, 기피제 사용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

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야호아이숲 27곳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운영하고 있다. 열골과 목을 제외한 겹옷에 기피제를 10초간 뿌리면 효과가 약 4시간 정도 지속돼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의 접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질환 발생에 대비해 역학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된 총 1,332명의 환자 중 249명이 사망했으며,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가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지난 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자영업자로부터 식료품

과 생필품 등을 기부 받는 '전주시사람(溫)마음 푸드 나눔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의 '희망마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을 공유했다.

정원선 회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며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밝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